

# 사랑 주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

## 1. 등장인물

**남자 A**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남자. 그래서 사랑받는 법도 주는 법도 모른다.

**여자 B** A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준 여자. B를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감정을 A에게 준다.

**남자 C** A의 아들. A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 2. 줄거리

1. A는 앞에 꽃을 들고 반지를 내미는 여성 B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A는 B와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은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주는 법을 몰랐다. B는 자신이 계속 사랑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A가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는 B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지만, 처음 받아보는 애정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했다. A와 B는 결국 부부가 되었다.

2. 둘이 결혼하고 40년이 흘렀다. B는 암에 걸렸다. B는 마지막까지 아쉬워했다. 사랑받는 법도, 주는 법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정이라는 참으로 어려웠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었다. B는 약속했다. 죽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A에게 줄 거라고 말이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3. B가 죽고 나서 집에는 A와 그녀가 키우던 식물 그리고 강아지만이 남았다. 식물과 강아지도 모두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그녀의 노력이었다. A는 그녀의 빈 자리를 채워나갔다. 식물에 물을 주고, 강아지와 산책하려 다녔다. 그런데 가슴이 간질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B가 죽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 일어났다.

4. A의 변화에 강아지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B에게 했던 것처럼 애교부리고, A에게 정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A는 강아지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아지가 애정을 돌려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B가 그렇게도 원했던, 사랑을 주고받는 감정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5. 사랑이라는 감정은 경이로웠다. 회색빛 사물이 빛을 띠기

시작했고, 단순히 물만 주던 식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A는 이제야 B가 왜 강아지와 대화하고, 식물과 대화하는 이유를 알았다. A는 사랑을 느끼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미 죽은 B에게 미안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 감각을 알았다면 B에게 진짜 사랑을 돌려주었을 것이다. A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사랑 주는 척을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6. A가 미안한 사람은 B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 슬하에 있는 유일한 아들 C였다. A와 C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C는 A를 미워했고, 지금도 둘 사이에는 안부 전화조차 오가지 않는다. 과거 사랑을 모를 때에는 서운함도 없었는데, A는 이제 서운함과 그리움도 느꼈다. A는 처음으로 C에게 먼저 전화 걸었다.

7. C와 A 사이에는 무미건조한 대화가 오갔지만, A가 처음으로 한 안부 전화였고, 이는 C에게 애정을 주려는 노력이었다. C는 A가 이상하다 느끼고 주말에 집에 내려왔다. C는 이미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었다. 오랜만에 사람 온기로 집이 북적거렸다. A와 C는 어색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 대신해서 A에게 말 걸고, 아직 어린 손주는 A에게 곧잘 어리광을 부렸다.

8. 저녁. 며느리는 C에게 아버님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C도 내심 표현은 안 했지만 A의 변화를 느꼈다. C는 A에게 쓸인 감정이 깊었다. B가 살아 있을 때, 둘의 오해를 풀려고 인생의 50프로 할애했다. 그리고 A에게 사랑을 알려주려고 나머지 50프로를 썼다. C는 몇십 년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A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럴 때면 B는 A의 어린 시절을 설명해 주었다.

A는 고아였다. 부모님이 없었다. 보육원에서도 제대로 된 보육을 받지 못했다. 모두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A는 인간관계가 모두 그린 줄 알았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남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다. 그런 A에게 B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계산이 통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대인 관계를 맺었다. B는 그것이 사랑때문이라고 말했지만, A에게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그는 B에게 고마움은 느꼈지만, B가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의 감정을 의심도 했었다. 나중에는 B에게 같은 감정을 돌려주고 싶어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었다. C는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평생을 B를 힘들게 한 A가 미웠다. 지금처럼. B가 죽기 전 하루만이라도 지금처럼 해주었다면. B는 더없이 행복해하며 눈을 감았을 것이다.

9. 아내는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었다. A와 C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C는 솔직하게 속상한 점을 말했다. 왜 B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는지 말이다.

A도 이제는 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걸 말이다. A는 B가 정말로 죽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주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유언은 단순히 희망이 아닌, 의지가 담긴 진심이었다. A는 C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털렸다. 마지막까지 B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더 B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C에게도 미안했다. C가 사랑했던 엄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했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해 미안했다.

두 부자는 테이블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감정을 다 털어 낼 때까지 그 간격은 줄어들지 않았다.

10. 1년 뒤, B의 기일. A와 C의 가족이 모였다. A와 C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교류가 있었다. 어색하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둘을 보며 C의 아내는 흐뭇했다. 둘의 문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다. 아내는 영정 사진 속 B를 보며 고맙다는 인사와 이제는 편히 잠들라고 기원했다. 아마 B도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처럼 흐뭇하게 미소짓고 있을 것 같았다.

-끝-